

보살의 길

2005년 가을호 제23호



8월 27일 실내악 연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나눔이 주는 특별한 선물



고수경 (미술활동봉사자)

노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양로원으로 들어서면 발걸음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봉사활동의 기회가 되어서 하면 좋겠다 생각만 했지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던 저에게 미술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던 박성은 선생님의 소개와 권유로 미술시간 수업 보조와 함께 어르신 분들을 뵈어 온지 어느덧 6개월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부터 편하게 대해주시고 모자란 점들도 이해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도움으로 첫 수업부터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해 나갈 수 있었고, 이제는 수업과 함께 어르신 분들과 나누는 교감이 저에게 오히려 많은 것들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 가슴 뿌듯한 느낌들을 아마도 저는 보람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려 붙이기, 잘라 붙이기, 그리기, 만들기, 색칠하기 등 수업시간을 통해 선생님들도, 어르신들도 잠시나마 모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듯 하곤 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끝나고 나면 수업을 진행한 것인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온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 수업후의 과정 어느 것 하나 즐겁지 않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수업 후에 기쁨을 가장 크게 느낍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이후 잊어버렸던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제 자신을 만나는 것 또한 봉사활동이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분들을 매주 만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을 한 층 더 이해하게 되는 점도 좋은 경험입니다. 순수한 아이마냥 웃으시고 즐거워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에 저까지 덩달아 즐거워지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손을 내밀어줄 수 있음이 따듯함으로 다가옵니다.

이 작은 봉사로 인해 저는 제 마음이 한층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삶이 진정 풍요로워지는 것은 물질적인 삶속에서가 아니라 사람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가르쳐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각박한 삶속에서 오히려 잠시나마 마음의 쉼을 얻어가기까지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다가서면 그 어떤 것도 하찮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손길이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저 스스로도 놀라는 것처럼, 바쁜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이 봉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고픈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매주 양로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그래서인지 더욱 가볍게 느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잘 계시죠?

박은선 (서울여자대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자원봉사 갔던 서울여
대 학생입니다.

벌써 2주가 흘렀네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꼭
다시 오겠다 말씀드리고 떠난게 엇그제 같았는데..
다시 찾아뵙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추석인데 어르신들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오
랜만에 고향길에 나서 부모님도 뵙고 음식 만들며 잘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저에게 있어 이주간의 짧은 경험은 아직도 가슴 시
리게 남아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나이 20살이 넘도록
제대로 된 봉사 경험 하나 없던 게 저였습니다. 봉사
라 하면 정말 가슴으로 사랑으로 모든 분들을 대하는
따뜻하신 분들.. 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라 봉사란 건
아무나 못하는 거지.. 하며 나에게만 참 멀기만 한 존
재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게 친구들과 함께
한 이번 경험은 절 얼마나 감동받게 했는지 모릅니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즐거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얼마나 기쁘고 행
복했는지 모릅니다. 저와 친구들 역시 할머니, 할아
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 그 자체가 얼마나 재밌고 즐거
웠는지 모두가 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말을 연신 해댔
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맙다, 정말 좋았다, 또
와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실 때의 보람 뿐 아니라 함께
나눈 시간 자체가 행복이어서 그때 처음 봉사의 의미
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가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직도 할머니께서 고맙다.. 안마하느라 팔 아프
지? 하시며 그 마른 손으로 제 팔을 꼭꼭 주물러 주시
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손끝으로 전해오는 따
스함과 가슴 찡함을 뭐라 설명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
니다. 그냥 지금 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 뵙고
싶다는 것입니다. 밥은 잘 드시는지, 어깨가 아프시
다 했는데 요즘은 좀 어떠하신지..

사람을 마음으로 대하는 것.. 저는 이번 할머니, 할아
버님과의 만남에서 이 소중함을 배우고 얻고 왔습니
다. 좀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큰 것을 얻어 왔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생각
이 날 것 같네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분들 생각하며 찾
아뵈어야 되겠다 오늘도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가 곧 찾아뵙게요.

오늘은 가을 하늘이 참 예쁘게 펼쳐졌는데 할머니, 할
아버지께서 자주 바라보시는 그곳 양로원 2층 창문에서
도 하늘이 예쁘게 비춰졌는지 궁금하네요. 내일부터는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곧 날도 쌀쌀해질 것 같아요.
감기안 걸리게 조심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

한두시간의 실습을 마친후...



처음 학교에서 실습을 하라고 할 때 막막했었다. 아직 학교 다닌지 반년밖에 안된데다가 실습장소를 알아보라고 해서 더욱 막막했던 지도 모른다.

교과 과정은 반년밖에 안 배운데다가 여러가지로서툰점이 많아 걱정이 많았다.. 사실 배운것이 별로 없어서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실습장소를 찾아갔다.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좋으시고 양로원 선생님들도 다들 좋으신분들이라 마음이 훨씬 편했다.

맨 처음엔 양로원이란 곳이 노인정 같은 곳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혀 다른 곳이었다.

실습을 하루 이틀 해나가면서 양로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참, 사연많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루 일과가 바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복지사가 할일이 참 많다는 걸 새삼 보고 느꼈다. 내가 실습하면서 한 일은 청소, 어르신 초기상담, 프로그램 보조 및 일지작성, 주1회 생활지도원 체험, 소식지 발송작업, 환경미화, 후원자들에게 지로발송하기 등등.. 이것 저것을 했다.

양로원에선 어르신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한다. 종이접기, 미술활동, 이야기 시간, 음악활동, 건강체조, 요가 등등.. 한번은 미술시간에 자유화를 그렸는데 최** 할아버지께서 날 이쁘게 그

려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기뻐다. 그 그림은 사진도 찍고 집에 기념으로 가져왔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기억이 남을 것이다. 또 한번은 강**할머님의 상담을 하라고 선생님이 지시 하신 적이 있다. 평소에 볼 때 강** 할머니는 무서워 보이셨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상담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니 생각이 잘못이란 것을 알았다. 강** 할머니는 정이 많으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셨다. 난 첫인상만 보고 강** 할머니를 판단했던 것이다.

그 걸 느꼈을 때 첫인상만 보고 판단했던 나 자신이 부끄럽고 할머니한테 죄송했다. 할머니는 상담할 때 귀찮아하시는 거 같으면서도 나한테 맘을 열어 얘기해주시고 실습 끝난 날도 서운하시다면서 주말에 놀러오라고 하셨다. 참 따뜻한 분이시다.

실습을 끝내며 든 생각은 양로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 어른들이 좀더 즐겁게 번잡하게 생활하 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양로원은 참 따뜻한 사람들도 많고 정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실습생을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혜명한마당



| 서울여대학생웃놀이 봉사 |

9월3일 서울여대리더쉽센터에서 학생 15명이 나와 어른들과 즐거운 웃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행사는 웃놀이와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과 사진찍기, 맛사지, 그리고 다과시간을 가져 어른들이 더욱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혜명양로원을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어르신 장례 |

양로원에서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삼일장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돌아가신 날 영가법회를 하시면 양로원의 어른들과 직원들 모두 참석하여 고인의 극락왕생을 빕니다. 삼일째 마지막 날은 마당에서 노재를 드러 어른이 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가님들의 극락왕생을 다시하번 소원합니다.



| 추석 방문자 |

추석을 맞아 양로원에 금천구청, 남부경찰서, 금천구 약사회, 금천우체국 등대회, 후원자 백승풍님, 영등포교도소 등에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마음 바쁜 추석 때 잊지 않고 양로원을 찾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추석빔 구입 |

추석을 맞아 양로원의 어른들에게 색깔 고운 긴팔 티셔츠를 추석빔으로 선물해 드렸습니다. 봄에 이어 두 번째로 구입한 옷은 어른들이 생활하시고 외출 하시기에 편하고 이쁜 것으로 골라 구입했습니다. 그곳 입고 가을 나들이를 다녀와야 겠습니다.



| 이발 |

영등포, 안양교도소 교도관들이 한달에 한번 방문하여 할아버지 이발을 해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할아버지들 머리가 이쁘게 잘라주시는 교도관님들의 마음과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송편 빚기 |

추석을 맞아 어른들이 송편을 만드셨습니다. 추석에 둘러 앉아 어른들이 옛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며 만든 송편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실내악 공연 |

토요일 오전 양로원에 바이올린, 더블베이스 소리가 울려 퍼져 습니다. 모차르트의 부드러운 연주에서 우리 동료, 가요 등은 어른들이 늘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었기에 더욱 더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



| 혜명복지원 직원야유회 |

혜명복지원 직원들이 처음으로 합동야유회를 가졌습니다. 청담복지관, 혜명보육원, 청담어린이집이 함께 자혜방생원에서 법회와 친목도모, 맛있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법인사무국이 생기며 처음 갖은 야유회는 앞으로 직원들이 더욱 화합하여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생일잔치 2부 공연 |

양로원에서는 한달에 한번 생일잔치를 합니다. 생일잔치후 2부 순서로 늘 외부에서 공연을 오서 관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천문화원팀,윤재순 민요팀,봉천놀이마당 등에서 나오서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방문하여 주신 공연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혜명동점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2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

■ 무료입소

입소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 양로원(상담 및 입소 결정)

◎ 현재 입소인원(9월 30일 현재)

- 총 60(1)명
 - 할아버지 : 26명
 - 할머니 : 34(1)명
- ※()는 실비입소자입니다.

◎ 직원 현황

- 총 16명
- 원장/사무국장 1명 /간호사1명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전문상담원 1명 /생활지도원 6명
- 위생원 1명 /서무 1명 /조리원 4명

축/하/드/립/니/다



▶ 9월5일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구충수 후원자님께서 후원자부분 협의회장상을 받으셨습니다.

1999년부터 인연을 맺은 구충수님은 가족모두가 양로원 후원자이시며 어버이날쯤엔 생업인 닭꼬치를 직접 실고 오셔서 어른들께 대접을 하셔서 외로움을 달래 주시는 선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구충수 후원자님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

- ▶ 9. 20 복지부 회계시스템 교육 송진희서무
- ▶ 9. 8~9. 9 서울시노인생활시설직원연수 진관 사무국장, 송진희 서무, 채명석, 백승미 생활지도원,

자원봉사자

2005년 7월 1일 ~ 2005년 9월 30일

f.g.t.g.(단체봉사팀),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미술교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안양교도소이발, 영등포교도소이발, 문일고, 동일고, 금천고, 동일여고,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불자연수지침팀(박경희,민귀남), 윤순재(사랑의모임 국악팀), 라이언스안과, 동일여상, 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대한적십자회원들, 건강체조(주보선, 전재은), 백산초등학교 6-1반, 문백엔젤스, 한국야쿠르트, 백련사신도님들, 씨네티아정보통신, 박성은·고수경(미술활동), 천종임(민요), 주정미(민요춤체조), 천종임(경기민요), 김도연(이야기시간), 김재홍(즐거운성악), 천종임(경기민요)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던킨도너츠, 백산초 6-1반학생일동, 이택종, 현성정사신도님들, 금천푸드뱅크, 서서울생활과학고, 인천보살림, sknetwork, 롯데마트, 보리심보살, 구충수, 성산식품, 바다횃집, 백련사, 협진3호, 이옥희어르신팔, 독지가, 이인옥, 국민의료보험공단, 서울여대, 보명사, 조용숙, 금천구의회, 금천구약사회, 셋별어린이집, 백승풍, 사랑의 실천운동본부

지로후원

윤재순60,000	한독병원90,000	연흥구30,000	장영애60,000	명법사20,000	구충수20,000
임옥수20,000	구희관20,000	나영균30,000	한지택100,000	서현종20,000	구봉순20,000
이애자20,000	이정호10,000	은선사10,000	윤재순30,000	문금자30,000	백승풍10,000
안정희10,000	김연숙20,000	민병천20,000	조관우10,000	석혜영10,000	

현금후원

노인복지시설협회 140,000	증권거래소 900,000	대림라이언스 900,000	청담어린이집 70,000	
김주현 90,000	박성수 90,000	국영호 60,000	지보현 48,100	임경자 90,000
권기상 150,000	박두영 150,000	구수미 150,000	황재기 20,000	고영빈 30,000
김은인 30,000	박정진 30,000	배승진 30,000	국영호 200,000	최형기 10,000
유정순 1,678,486	시흥상부교회 200,000	금천구약사회 300,000		강운호 200,000
삼육지관 100,000	금천구청 590,000	서울시청 590,000		이태호 300,000
최형기 10,000	영등포교도소 3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800,000		남부경찰서 300,000
금천우체국 등대회 2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 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 후원내용 : 현금 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 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 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 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카메라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류

☎ 지로번호 : 7655940

☎ 지로계좌(우리은행) : 711-046904-13-012

☎ 우리은행 : 145 - 05 - 095018

☎ 예금주 : **혜명복지원**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

1. 혜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혜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 5617번 범일여객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or.kr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발행인: 박재근(연성 큰스님)

주 소: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TEL 02)802-6765

FAX 02)892-2068